

## 비통에 잠긴 대한민국... 더딘 구조에 절규

### 세월호 침몰 사고

비바람에 파도 높아 선내 진입 번번이 실패  
뜬 눈 밤샘 가족들 “살아만 있어다오” 염원  
사망자 9명으로 늘어... 박대통령 “구조 최선”

관련기사 2·3·4·5·6·23면

대한민국이 비통에 잠겼다. 온 국민이 울부짖었다. 우리 모두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되길, 살아 돌아오길 기원하며 하얗게 날을 썼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야속한 하늘을 탓하며, 배를 절단해서라도 진입해 우리 아이들을 구조해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들끓고 있다.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지만 가족들의 제지로 한때 연단에 오르지 못하기도 했다. 그 마음으로 16일부터 대한민국은 세월호를 바라보며 그대로 멈춰섰다.

◇악전고투속 수색=세월호 침몰 사고 이틀째인 17일 정부는 잠수부와 항공기, 선박, 인양크레인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사고 현장인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해상엔 파도가 강하고 비바람이 치는 데다 수중 시야가 수십cm에 불과해 수색에 난항을 겪었다. 잠수부들은 10여 차례 선박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잠수부들은 생존자가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배를 망치로 두들겨 내부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다.

이날 오전 9시께 물때가 바뀌면서 물길에 조류가 잠시 주춤해진 틈을 타 수심 10m의 해경 경비정과 해군 함정에서 내린 소형 선박들이 침몰한 채 선수만 드러낸 세월호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해경 고속단정에서 투입된 잠수대원 2명은 투입 1분도 안돼 거센 조류 탓에 선체 내부로 진입하기는 커녕 잠수위치에서 100m 흘러가기를 반복했다.

◇더딘 구조에 가족들 절규=17일 진도군

실내체육관에 모인 실종자 가족들은 혹시나 자식들이 돌아올까 하는 기대감에 지난 밤을 뜬 눈으로 새웠다. 이날 오전부터 사망자 시신이 추가로 운구되고, 사망자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자신의 일인 양 주저앉아 오열했다. 지쳐 쓰러진 20여명은 링거주사를 맞는 등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다.

자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울음을 터트리다가 쓰러진 어머니는 신원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도 했다.

구조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족들은 구조 작업 속도가 느리다며 고성을 질렀고, 수색에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며 항의했다.

실종된 단원과 학생의 학부모들은 “언론 기사를 보면 100여명이 수색에 나섰고, 많은 해경들이 움직이고 있다는데, 실제 바다를 보면 몇 명이 있지도 않다”며 관계자들을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도 선난 가족들은 선내 공기주입과 선내 진입 수색을 요구하는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구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여객선 침몰 현장을 방문,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군과 해경 등의 구조 활동을 독려했다. 정부는 이날 세월호의 사고 수습과 사후대책을 총괄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본부도 구성했다.

한편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7일 오후 7시 현재 사망자는 전날에 비해 4명이 증가한 9명이며 실종자는 287명이라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틀째인 17일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해상에서 구조대원들이 거센 파도속에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해경, 사고 원인 선체 결함·항로 급선회 수사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6825t급) 사고 원인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경찰이 정확한 입장조차 내놓지 못하면서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경은 일단, 사고해역은 수심이 깊고 암초가 없는 해역으로, 암초에 의한 좌초 가능성은 낮아 선체결함을 통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중이다.

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2012년 10월 일본에서 세월호를 국내에 도입한 직후 이듬해 3월까지 목포에서 객실 증설 공사를 진행했다. 3층 56명, 4층 114명, 5층 11명 등 총 181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객실 증설 공사로 여객 정원엔 921명으로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여객선 상부인 3~5층에 객실

이 추가로 들어섰다면 배의 복원력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급한 회전으로 인한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보했다.

하지만, 세월호 도입 당시 '제조 후 등록 검사'를 담당한 한국선급은 객실 증설공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공사였고 침몰 사고 원인과도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

다는 승무원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침몰사고 원인이 급하게 회전하는 과정에서 순간 무게 중심이 쏠린 데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완만한 변침이 아니라 '무리한 변침'이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변침(變針)은 항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진도=박현영기자

/백희준수습기자 bhj@

###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광주일보 임직원 일동

광주일보 임직원 일동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에게 독자와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조속한 구조작업으로 희생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본보는 20일로 창사 62주년을 맞아 다양한 창사특집 기획 기사를 마련했지만 세월호 참사에 신속하고 심층적인 보도가 우선이라고 판단, 일부 특집기사 게재를 미뤘습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진도지역의 이미지를 고려해 18일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로 통일해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 창사 특집 지면 안내

새정치연합 광주시장·전남지사 지상토론	8·9면
지역공기업 특집	12·13·14·15면
관광형 쇼핑명소가 지역경제 희망이다	19면
광주일보 선정 뉴파워 62	20·21면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WANDO SEAWEEDS EXPO 2014  
공식 후원은행

바다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

광주은행이 2014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광주은행**